

## 선비들의 애정이 깃든 사랑방 가구

황지현 | 204호 목칠공예실 | 18:00~18:30

조선시대 여성공간인 안방과는 별도로 남성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인 사랑방(書廊)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서 사랑방은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선비들은 유학(儒學)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사회를 교화(敎化)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들은 문(文), 사(史), 철(哲)을 중심으로 학문에 힘썼다. 동시에 시(詩), 서(書), 화(畫)를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교양 함양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를 읊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교류를 통하여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랑방은 학문을 연마하는 문방(文房)이자 예술 활동의 공간, 그리고 뜻이 맞는 벗들과 교류 장소였다.

선비들은 부귀(富貴)를 나타내는 화려함을 숙된 것으로 여겨 사랑방 역시 우아하면서도 깔끔한 멋이 배어날 수 있도록 꾸몄다. 청빈(淸貧)함과 검소(儉素)함을 생활 이념(이념)을 하는 선비의 곧고 맑은 정신은 방에 갖추는 문방사우나 문방가구에도 배어나 번잡한 장식이나 과다한 배열은 하지 않았다. 특히 사랑방 가구는 절제된 생활을 추구하는 선비의 취향에 맞게 간결한 선, 단순한 구조, 쾌적한 비례를 고루 갖춘 것이 선호되었다.

사랑방에 갖추어 놓고 사용하는 기물 중 가장 소중히 다루었던 기본적인 물품은 종이[紙], 붓[筆], 먹[墨], 벼루[硯]의 문방사우(文房四友)였으며, 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품도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사랑방 내부 모습

## 인간, 말을 타다.

장은정 | 104호 부여삼한실 | 18:00~18:30

야생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여 식량을 얻던 인류는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은 개다. 개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미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수렵인의 반려동물이었다. 개에 이어 가축화된 동물은 염소, 양, 돼지, 소와 같은 유제류이다. 기원전 8500년 무렵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가축화는 고기와 젖 같은 식량 공급원을 얻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목축은 농경과 함께 수렵 채집 사회를 식량 생산 사회로 전환시켰으며 경제와 문화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말의 가축화는 이보다 늦은 기원전 3500년-3000년 무렵 중앙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이루어졌다. 말은 지구력이 약하고 거칠어 다루기 쉽지 않지만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달리는 능력을 가졌기에 장거리를 신속히 이동하는 데에 유용하였다. 따라서 길들인 말을 소유한 자는 그렇지 못한 이와 비교해 월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길들여진 말은 처음에는 기마보다 마차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바퀴살이 발명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가벼운 이륜마차는 기동성과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말을 길들여 부르는 데에 필요한 것은 이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가장 초보적 수준의 제어 수단으로는 고삐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유기질 재료로 만들어져 오늘날 남아 있기 어렵다. 고삐에 비해 강화된 제어 도구가 재갈이다. 재갈은 나무, 뼈, 금속 등의 단단한 물질을 말의 입에 물리고 양쪽에서 이를 당겨 혀를 자극함으로써 통제하는 수단이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쇠와 이의 탈락을 방지하게 위한 재갈멈치로 이루어졌다. 더욱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을 때 말에 대한 제어력이 증대하므로 재갈은 유기질에서 금속제로 변화해 갔다. 특히 기마전투와 같이 격렬한 활동을 위해서는 금속제 재갈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으며 재갈과 함께, 안장, 등자와 같은 마구가 함께 발달하였다.

고대 한국에서 기마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는 재갈과 같은 마구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재갈은 두 마디로 이루어진 재갈쇠와 막대 모양의 재갈멈치를 가진 형태이다. 재갈멈치는 일자형 또는 S자형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고사리무늬와 같은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제61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14일)

## 영원한 행복을 꿈꾼 그림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9:00~19:30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애써 손에 넣은 행복도 찰나에 스쳐갑니다. 유한한 삶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비단으로 몸을 감싼 부귀한 사람이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건, 늙고 시들어가는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꿈을 꾸니다. 욕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연과 벗하며 영원히 산다는 신선의 이야기는 현실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서화실에서는 올해 세 번째 주제전시로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조선시대 서화를 선보입니다.

신선 세계를 그린 그림에는 옛 사람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곤륜산 요지에서 열린 서왕모의 연회를 그린 요지연도瑶池宴圖가 왕실과 민간 모두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시대의 기록인 『목천자전穆天子傳』에는 주나라 목왕穆王이 여덟 준마를 타고 서쪽으로 여행하다가 곤륜산 요지에서 서왕모의 연회에 초대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천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는 천상의 복숭아, 반도蟠桃를 대접하는 연회 장면은 장수와 행복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병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요지연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림(덕수 3458)을 선보입니다. 서왕모와 마주앉은 목왕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봉황은 왕실의 안녕과 태평성대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배경으로 반도를 그린 <신선 세계의 복숭아>(덕수 2153)는 궁궐을 장식했던 칸막이 그림으로, 2미터에 가까운 압도적 규모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 요지연도에는 연회에 초대된 여러 신선들이 파도를 건너는 모습이 널리 표현되었습니다. 중국의 팔선八仙 뿐 아니라 부처와 보살, 이백李白 등 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선이 함께 등장하여 복을 부르는 의미를 더합니다. 김홍도는 파도를 건너는 신선들만 따로 병풍으로 그려내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요지연도 병풍은 실내 장식의 역할 뿐 아니라 행사에 경사스러운 의미를 더하는 의례용품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지연도를 가례嘉禮(혼례) 마당에 펼쳐 부부의 영원한 행복을 빌었습니다. 수많은 신선과 선녀들이 어우러진 요지연도의 연회 장면은 혼례 잔치에서 음식을 나누며 왁자지껄하게 기쁨을 나누었던 하객들의 모습과 겹쳐져 복된 날 흥을 돋우어 주었을 것입니다.

제61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14일)

##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백토白土

김희정 | 303호 청자실 | 19:00~19:30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든 지 약 천 년이 지났지만 제작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대략 6단계를 거치는데<sup>1)</sup>, 제작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대에 따라 재료나 번조방법, 사회 제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 점의 청자, 한 점의 백자가 완성되기까지 제작과정 속에 드러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 점토**는 1000℃ 이상의 온도에서 무너지거나 녹아내리지 않고 견뎌내는 특별한 흙을 말합니다. 백자의 경우 세계 도자기의 요람인 중국 가오링[高嶺] 산의 백색 원석을 점토로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백색의 자석광을 고령토高嶺土(kaolin)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으로 끌려간 조선의 사기장 중 이삼평李參平(출생년 미상~1655)<sup>2)</sup>이 1616년 아리타[有田] 동부 이즈미야마[泉山]에서 고령토를 발견함으로써 백자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석광 형태의 고령토는 매우 단단한 암석 형태이므로 잘게 부수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디딜방아를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 디딜방아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대체로 도자기 점토는 토맥土脈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채취해 온 흙은 물에 풀어 수비水飛(잡물을 걸러내는 작업)하고, 어느 정도 마르면 반죽하면서 기포를 제거하고, 점성을 높여 점토를 만들었습니다.

### 백토의 채굴

고려시대 관요적 성격을 띤 강진의 청자나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적합한 점토를 대체로 주변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숙종 40년(1714)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백자 점토는 대부분 산 정상 근처에서 채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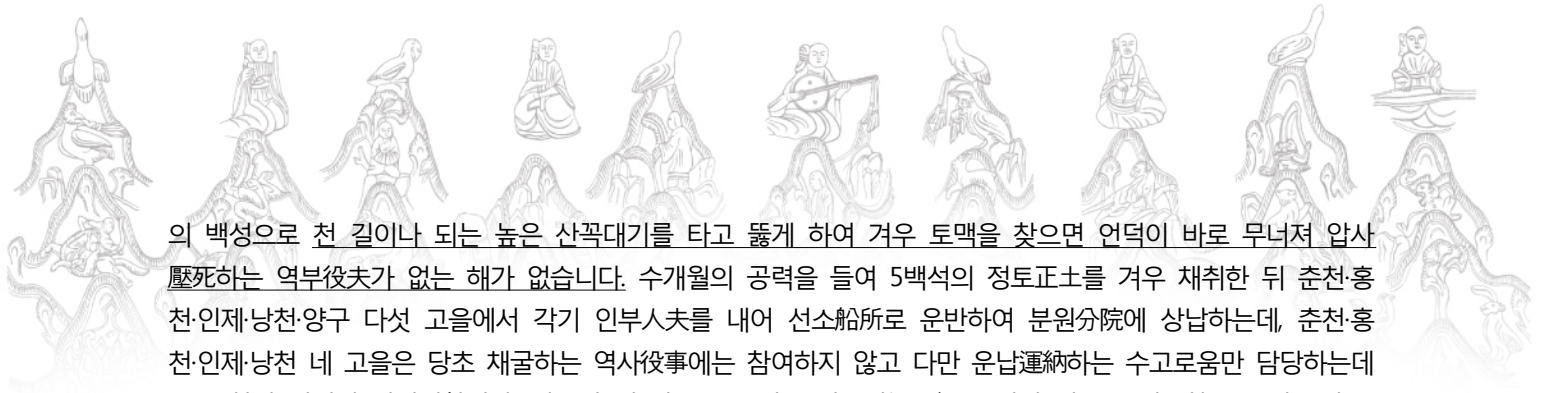
정언正言 조명겸趙鳴謙이 양구현楊口縣에서 소명召命을 받들고 들어와 양구 백성들이 백토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하여 상소로 진달하기를,

백점토白粘土는 높은 산 가운데에 있는데, 양구의 부역에 응하는 민호는 5백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5백 호

1) 도자기 제작과정은 1. 점토 마련, 2. 성형, 3. 초벌구이, 4. 장식, 5. 시유, 6. 재벌구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이삼평李參平: 이삼평이 조선에 살 때의 행적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는 히젠국[肥前国] 사가번[佐賀藩]의 번주 藩主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1536~1618]의 군대에 잡혔다. 일본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나베시마의 사위이자 가신인 다쿠 야스토시[多久安順]에게 맡겨졌다. 이삼평은 일본에 도착한 다음 몇 년간 다쿠 야스토시를 위해 일했으며, 18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쿠 지역에서 아리타로 1616년에 이주했다.





의 백성으로 천 길이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를 타고 뚫게 하여 겨우 토맥을 찾으면 언덕이 바로 무너져 압사(壓死)하는 역부(役夫)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수개월의 공력을 들여 5백석의 정토(正土)를 겨우 채취한 뒤 춘천·홍천·인제·낭천·양구 다섯 고을에서 각기 인부(人夫)를 내어 선소(船所)로 운반하여 분원(分院)에 상납하는데, 춘천·홍천·인제·낭천 네 고을은 당초 채굴하는 역사(役事)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운납(運納)하는 수고로움만 담당하는데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더욱이 이 양구 고을에는 지토선(地土船)도 없이 백토를 채굴하는 중역을 홀로 떠맡고 있는데, 또 운납하는 큰 역사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sup>3)</sup>

#### 『몽와집』<sup>4)</sup>

봉산 백토를 굴취하여 실어 나르는 일은 여러 군에서 막대한 폐단을 주고 민생의 곤핍함을 심화시키나 국가에서 그릇을 굽기 위해 반드시 불가피한 일입니다. 듣자니 백토가 산출되는 군 동쪽의 태산 정상은 반드시 수십장을 굴착하여야 하고 굴취가 끝난 후에는 멀리 떨어진 배로 가야합니다. 재능, 안락, 황주 등의 읍은 수송의 폐단을 명하지 못하여 불행해지거나 패물하는 우환이 있습니다.

위 기록에 따르면 백토 채굴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혹은 흉년, 운반문제로 인해 백성들의 고초가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 수령은 이러한 이유로 백토 공급량을 줄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 백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1466년)

한편 조선 전 기간에 걸쳐 깔끔하고 기품있는 빗갈의 백자(어용자기御用磁器) 제작에 힘썼던 관요에서는 좋은 백자 태토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관요’라는 것은 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그릇을 만들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백자 생산 과정과 공급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고 지원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장이 임의로 만든 그릇이 통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형식과 품질을 갖춘 백자 생산을 목적으로 관요가 설치된 것입니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백자기는 진상(進上)과 이전에 번조(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공사간(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또 공물(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공사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白土)가 산출되는 곳은 소재( 소재)읍으로 하여금 도용(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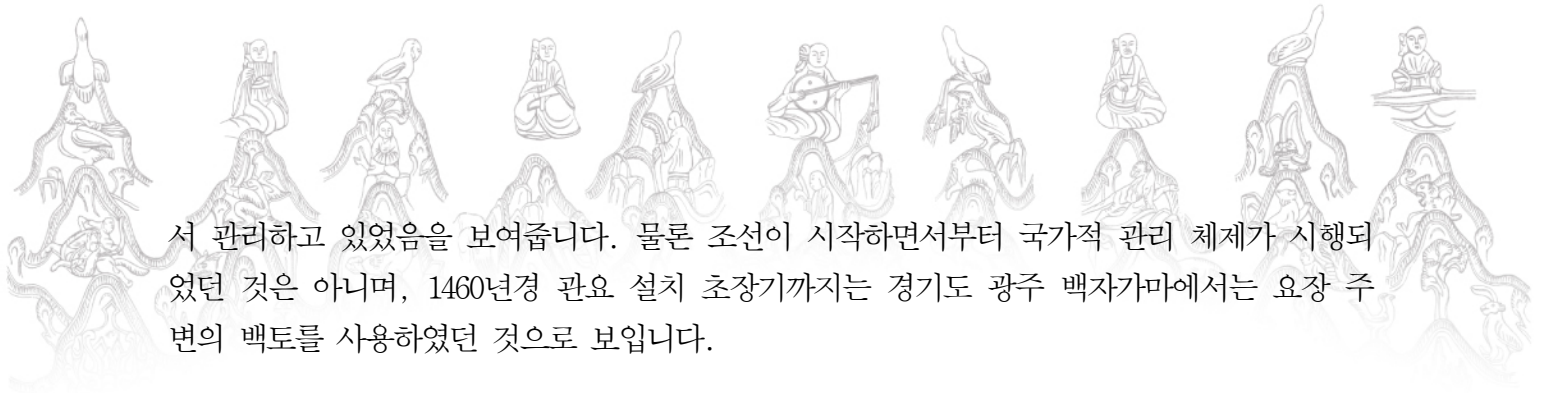
위 내용은 진상자기에 대한 사사로운 사용과 제작을 금지하고 백토까지 공조와 승정원에

3)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8월 23일 임진 2번째 기사

4) 『夢窩集』 卷之六 疏筭 陳西路民瘼筭

鳳山白土掘取輸運之役。爲數郡莫大之弊。民生之困瘁甚矣。此係 國家燔器之用。固是不得已之役。而竊聞白土產出於郡東太山之頂。而必須鑿掘數十丈。始得正土。故動一境之民而悉趨其役。既已掘取之後。去船所且遠。載寧, 安岳, 黃州等邑。亦不免轉輸之弊。而不幸而或有敗沒之患。

5)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1466) 6월 7일 병오 1번째 기사



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조선이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적 관리 체제가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며, 1460년경 관요 설치 초창기까지는 경기도 광주 백자가마에서는 요장 주변의 백토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구워내는 백점토를 전자에는 사현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양근楊根에서 파다 쓰고 있다. 그런데 사옹원司饔院에서는 해마다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달라고 계청하는가 하면 병조에서는 그때마다 군인이 없다고 아뢴다. 예전에는 사기장이 실제로 많았으나 지금은 반이나 도망하였다. 당령 수군을 많이 배정할 수는 없으니 50여 명을 항식恒式으로 삼아 정급定給할 것도 아울러 의논하라<sup>6)</sup>

위 기록은 중종 25년(1530) 승정원에 내려진 전교입니다. 이 글에서 사현沙峴에서 백토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현은 오늘날 은평구 일대로 알려져 있어 가까운 곳에서 백토를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기장들이 많이 도망을 갔고, 자기 생산 과정에 군인이 동원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660년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본원 번조에 소용되는 원주, 서산 두 곳의 흙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경주 백점토를 취해<sup>7)</sup>”라는 기록과 같이 백토 조달지가 원주, 서산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선천宣川, 황해도 봉산鳳山, 경기도 가평加平, 충청남도 서산瑞山, 충청북도 충주忠州, 강원도의 원주原州, 양구楊口, 경상북도 경주慶州, 경상남도 진주晉州, 하동河東, 곤양昆陽 등이 주요 백토 조달지였습니다. 이중 양구가 사료에 등장하는 횃수가 제일 많았으며, 관요가 폐요되던 1883년을 지나 분원公所(分院貢所期, 1883~1895)가 운영되던 20세기 초까지 주요 백토 산지였습니다.

이렇게 관요로 들어온 전국 각지의 백토들은 시험 번조하여 확인하고 여러 백토를 조합하여 최상품의 백자를 얻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승정원일기』는 전국 각지의 백토 수급과 그 품질을 시험 번조하여 확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관요로 추정되는 광주 일대 백자 가마 출토품의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태토에서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에서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관요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백토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산리의 초기 가마에서 제작된 백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백자 간의 성분조성이 매우 달라 양질백자를 제작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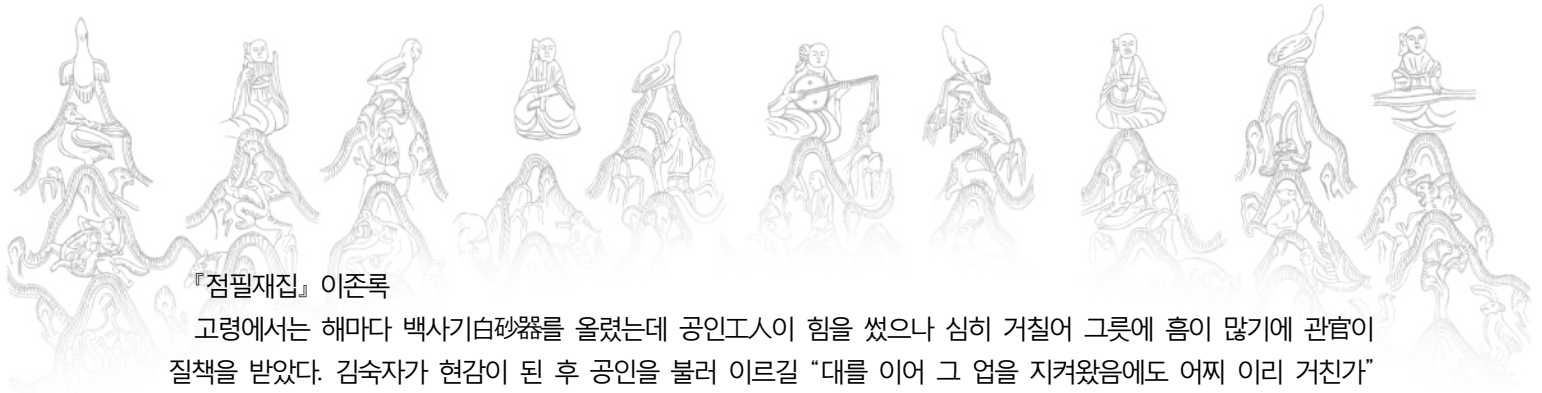
## 지방백자의 백자토

조선시대 백자는 전국 각 지역의 가마에서도 제작되었습니다. 지방백자라고 해서 품질이 모두 조악했던 것은 아니며, 좋은 품질의 백자를 생산한 곳의 백토는 관요에 공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백자의 품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6)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1530) 2월 5일 을축 1번째 기사

7) 『승정원일기』 162책

8)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 관요 종합분석보고서』 2008, 표 1-9



### 『점필재집』 이준록

고령에서는 해마다 백사기白砂器를 올렸는데 공인工人이 힘을 썼으나 심히 거칠어 그릇에 흠이 많기에 관官이 질책을 받았다. 김숙자가 현감이 된 후 공인을 불러 이르길 “대를 이어 그 업을 지켜왔음에도 어찌 이리 거친가” 하면서 구사지법九篩之法을 가르치니 정치精緻하기가 광주, 남원의 것보다 좋아졌다. 앞서 매번 진현시에 두 읍은 상을 받고 고령현의 공인은 죄를 받았는데 이에 이르러 고령현의 공인은 상을 받고 두 읍은 견책을 받았다.<sup>9)</sup>

내용에는 ‘심히 거칠어 그릇에 흠이 많기에 관이 질책을 받았다.’와 그릇이 정치해진 후 ‘광주와 남원 두 읍이 견책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백자의 품질과 생산은 물론 그 책임까지 관할 관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산 백자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 『용재총화』 「대동야승」

사람이 사용하는 것 중에 질그릇이 가장 긴요하다. 지금의 마포와 노랑진 등은 모두 진흙 굽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는 모두 질그릇·항아리·독의 종류이다. 자기의 경우 백토를 써서 정밀하게 구워 만들어야 사용하기가 좋다. 외방 각 도에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다만 고령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정교하다. 그러나 그것도 광주에서 만드는 것만큼 정묘하진 못하다.<sup>10)</sup>

위 문헌은 성현이 쓴 『용재총화』의 일부분으로 고령에서 우수한 품질의 백자를 생산하였음을 보여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고령은 상품자기를 만들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기록은 관요 성립 이후에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백자가 생산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도자사에서 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전시실에 전시된 백자 한 점에는 백토 한 주먹을 채취하는 백성의 손길부터 많은 공납과 부역에 신음하던 사기장, 기품있는 백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관료 등 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9) 『佔畢齋集』 彝尊錄, 先公 事業 第四; “高靈歲貢白砂器, 工人用功, 甚鹵莽, 故器多若窳, 官被詰責, 先公至, 召語工人曰, 昔舜陶河濱, 胡公利器用而封之陳, 是豈可少哉, 若等祖孫, 世守其業, 何鹵莽如是, 若等妻子, 皆知造餅餌, 篩之數重, 則米屑精潔, 撫按良久, 則脈理膩滑, 其用工與此何殊, 遂教其下九篩之法, 精緻鮮潔, 居廣州南原之右, 先是, 每進獻, 二邑之工受賞, 縣工多得罪, 今縣工得賞, 而二邑之工, 反受譴, 至今賴之.”

10) 『慵齋叢話』 「大東野乘」; “人之所用, 陶器最繁, 今麻浦露梁等處, 皆以陶埴爲業, 此皆瓦器缸瓮之類, 至如磁器, 須用白土, 精緻煑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 多有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不若廣州之尤爲精也, 每歲遣司甕院官, 分左右邊, 各率書吏, 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錄其功勞, 而等第之, 優者賜物.”; 『용재총화』는 成倪(1439-1504)의 문집으로 고려 때부터 조선 성종 때까지의 기록이지만 책의 저술 연도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499년(연산 5년)까지의 일이 기록되었고 성현이 1504년에 죽었음을 감안하면 1499~1504년 사이에 저술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재총화』의 세종연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료들이 역사적 傳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 기록을 인용하였다.